

내달 개원 시·도의회 의장선거 뜨겁다

시의회, 재선 '5파전' 초선의원 표심이 변수

도의회, 재력이 '2파전' 서부권·동부권 싸움

6·4 지방선거가 종료되면서 7월 개원하는 광주·전남 시·도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전이 뜨겁다. 광주시의회는 재선에 성공한 현직 시의원을 중심으로 5파전이 전개되고 있으며, 전남도의회는 팽팽한 양강 대결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새정치 초선 마음을 사로잡아=광주시의회 당선자 22명(비례 3명 포함) 중 전반기 의장 출마자 후보들은 모두 재선에 성공한 현직 시의원인 김영남(서구 3)·문상필(북구 3)·이은방(북구 6)·조영표(남구 1)·조오섭(북구 2) 의원 등 5명이다.

이들은 당선자들을 상대로 지원을 부탁하는 등 본격적인 의장 선거전에 돌입하는 등 현재까지 '5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22명의 시의원 당선자 중 통합진보



당 소속 비례의원 1명을 제외한 21명이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라는 점에서 새정치연합 초선 의원들의 표심이 전반기 의장 선거의 당락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일부 의원들간의 '합종연횡'과 초선 그룹에서의 의장 후보 배출 여부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앞서 6대 광주시의회가 출범할 당시에도 초선 의원들이 '의기투합'해 재선 3선을 누르고 초선 출신 의장을 배출하는 전례가 있어 초선 의원들의 움직임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6대 시의회에서 정치적 친분 등을 고려할 경우 김영남·문상필·조오섭 의원과 이은방·조영표 의원 간 단일화 가능성도 점쳐지

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제7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는 다음달 2~3일 후보 등록을 한 뒤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하게 된다.

◇수심익원대 재력가의 2파전=내달 7월 개원을 앞둔 전남도의회도 의장, 부의장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년 만에 새 도지사가 들어서면서 도정 전반의 '혁신'이 불가피한 가운데 도의회가 이를 어떻게 동조 또는 견제할 지가 관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장은 2파전 양상이다. 재선이자 제9대 의회에서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을 지낸 명현관(해남1), 9대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임명규(보성2)의원이 표방을 갖고 있

다. 합리적 성품에 지역 현안에 해박한 명 의원과 호탕하고 추진력이 있는 임 의원 모두 수심익원대 자산이기도 하다. 두 의원 모두 이미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단 조 각까지 마치고 세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은 성격이나 의정활동 스타일 자체가 대조적인데다 명 의원은 서부권, 임 의원은 동부권에 강세를 보이고 있어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부의장에는 각각 3선인 윤시석(장성1), 장일(진도), 이동권(영광1)의원과 재선인 권 욱(목포2), 박동수(순천2)의원이 뜻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한승원 칼럼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은 작고한 시인 이형기 선생의 '낙화'라는 시의 첫대목이다. 70대 중반의 노인으로 살고 있는 나는 얼마 전부터 늘 이 시를 머리에 담곤 한다.

노년이란 무엇인가. 머리 희어지고 얼굴에 주름살이 늘어가듯이 경련과 지해가 늘어나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지만 조용히 침잠하고 자연천화적으로 남은 삶을 단순화시키면서 정리해 가야 하는 사람이다.

옛날 중앙의 정치판에서 오래 권력을 주무르며 산 사람들은 늙어 향리로 돌아가 후세들의 학문을 위해 몸을 바쳤다. 중국의 도연명은 벼슬살이를 하다가 '귀거래사'라는 명편의 시를 읊으며 고향으로 돌아갔다.

'돌아가자/ .../ 이미 내가 잘못하여 스스로 권력 주위를 맴돌았고/ 따라서 정신을 육신의 노예로 부렸거늘/ 어찌 한탄하고 슬퍼만 해야 하는가/ 지난

리한 말, 가령 당신은 늘 실책을 범하고 있으므로, 이제야 당신 물러날 때가 되었다고 추궁하면 귀가 먹은 듯 들은 척해버리고 아예 대꾸하지 않아버리는 짐승을 쓴다.

죽어지면 저승으로 갔고 가지도 못할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한다.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나는 마음을 비웠다"라고 말하고, 역사에 내 이름 하나 남기려고 지금 여기 머물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자기 이름이나 행실이 얼마나 추해져 있는지 알지 못하고, 나 아니면 이 일을 잘할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

만일 어머니 아버지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조카뻘 되는 사람이 있으면 가르쳐서 시집 장가를 보내주되, 일단 그 일을 마친 다음에는 모든 살림살이를 신선한 그늘이 마음 가는 대로 하며 살라고 말하고 간섭하려 하지 말고 물러나야 한다.

백세시대라고 할지라도, 늙은이는 세상과 깨끗하게 하직할 연습을 해야

시 '낙화(落花)' 암송하며 산다

일은 고칠 수 없음을 깨닫고/ 앞으로는 바른 길을 좇음이 옳음을 알았다...

그의 시구들 가운데서 '무심한 구름은 산마루 바위틈에서 돌아 나오고/ 지친 새는 돌아올 줄 안다(雲無心以出岫 鳥倦飛而知還)'라는 구절은 동양철학의 진수를 표현한 것이어서 인구에 회자된다.

나는 서울에서 살다가 18년 전에 귀거래사를 부르며 고향으로 돌아왔다. 지금 내 삶은 지방의 한 대학 문예창작학과에 일주일에 한 시간 출강하여

후배들의 소설 쓰기를 돌봐주고 사는 것이 고작이다. 이제야 그거마저도 노담을 하고 있지 않는지 성년 얼굴로 성찰한다.

예로부터 노담과 노화란 말이 전해오는데 나는 그것을 두려워한다. 노담이란 말은 늙은이의 탐욕이란 말이고, 노화는 늙은이의 교활함이란 말이다.

나는 그 둘 가운데 특히 노화를 싫어한다. 한자로는 늙을 노(老)자와 교활할 회(會)자를 쓴다. 개(犬) 번에 모일 회(會)를 붙여 쓴 그 글자를 자세히 해석하면 '백년 목은 여우의 그것처럼 교활하고 교활한 꾀들이 다 모였다는 것이다.'

탐욕 많고 노화한 율음한 늙은이는 권력을 움켜쥐려고 한다. 자기에게 불

하는 사람이다.

나는 얼마 전부터 이별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헤어질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아내는 이별연습이라는 말을 슬프다고 싫어한다.

하루 한 차례씩 들판을 건너 바다 모래밭을 한 바퀴 돌아오는 산책을 하면서 들풀과 해당화과 개개비새와 해오라기와 두루미와 갈매기와 물떼새와 파도와 채취선과 모래알과 수평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핀다.

내 너희들을 언제 다시 보라, 하고 깊이 살핀다. 아내와 더불어 여행을 하면서 손을 꼭 잡고 풍광을 살피면서 걷는다. 우리 언제 다시 여기 와서 이것들을 보라, 하고 그것들을 영혼 속에 간직하며 안녕을 고한다.

이별할 생각을 하고 바라보면 아쉽고 귀하고 더욱 깊은 정이 간다. 허투루 보지 않고 의미를 깊이 심으면서 살핀다.

이제 마지막 퍼내는 책이 될지도 모르는 원고를 정리하고, 흐르지는 눈을 크게 벌려 뜨고 꼼꼼히 수정 가필하곤 한다. 이별을 위하여 무덤을 마련하고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랬듯 나의 묘지명을 써둔다.

먼 나라로 가는 나의 뒷모습이 깨끗하고 아름다웠다는 말을 듣고 싶다.

(소설가)

'달빛동맹' 의정활동 교류

서정성 전 광주시의원

대구 지방의원 대상 특강

서정성 전 광주시의원(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 수석 보좌관)이 24일 대구시 지방의원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 기법'에 대한 특강을



진행, 영·호남 지역 간의 의정활동 교류에 나섰다. 서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에서 개최된 '2014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 예산심사의 실제요령과 예산낭비 사례 분석 등의 의정활동 노하우를 전달했다.

특히 서 전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경험을 토대로 ▲지방예산 검토방법 ▲예산낭비의 주요 유형과 원인 ▲예산낭비 절감을 위한 10대 사항 ▲공약사항 이행 점검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시민과 만남의 날' 우수사례를 통해 시민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서 전 의원은 "광주와 대구의 다양한 형태의 '달빛동맹'이 지역 간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야당의 불모지였던 대구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원 14명(시의원 1명·구의원 13명)이 당선됐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대역'으로 국민속인 국방부

육군이 지난 23일 자살 시도 직후 강릉 아산병원으로 후송한 임모 병장은 군이 멀쩡한 병사에게 모포를 덮어 임 병장 행세를 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23일 강릉 아산병원 가짜 임모 병장 이송 모습.

대학 등 공공시설서 음주·주류 판매 금지 추진

복지부, '치매 대응전략' 보고

정부가 치매의 주요 위험요인인 음주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등 치매를 발생시키는 여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치매환자 등이 머무는 요양병원과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시설·인력 등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 치매 대응전략'을 보고했다.

먼저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음주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 국민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해 대학교 등 공공 시설에서의 음주와 주류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 캠퍼스내에서 술판을 벌이는 것이 불법이 되며, 대학 축제가 일일주점도 볼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또 내달부터는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며,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치매가족 휴가제'도 시행된다.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집

신속하고 간단한 뽀칠시공으로 **뿌려만주면**
3~4°C 실제 내부 온도가 차이가 난다면?

✓ **이지골드코트**는 복사열로 인한 건축물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뽀칠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복사열을 방지**합니다.
이제 후끈후끈한 열대야에서 해방되십시오.

적용범위 : 신축 건물 및 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외벽, 옥상, 지붕 등
슬라브 구조 주택 옥상 / 슬레이트 지붕 / 아스팔트 영골 / 주택의 외벽 / 샌드위치 패널 벽체 및 지붕 기와지붕 / 계랑기와 지붕 / 아치판넬 구조 지붕 / 축사(우사, 돈사, 계사 등) 지붕 / 사료탱크 등

EG GOLD COAT 이지골드코트
대리점문의 본사 :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10-7514-3266 / T. 041-634-9909

(주)홍성이엔지
www.hsegreen.com

호남영업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680
광주북구 T. 010-9431-3445 /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

Advanced Partner
보청기 사업부 인증
프리미엄 전문점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OPEN 특가 이벤트!

상담만 받아도 배터리 1팩 제공
최신 청력평가 장비 도입
청각학 석사 전문가 무료 상담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미래로메디스유) 보청기사업부
문의전화 062)376-1010

시흥
SIEMENS
EPC빌딩 수협 지멘스 상무점
학암빌딩 501호
농협(순천지점)
상무점
아비동감자탕